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아르헨티나

Republic of Argentina

2020년 3월 20일 | 조사역(G3) 조현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2,780천 km <sup>2</sup> 	<b>인구</b> 4,547.9만 명 (2019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경제실리외교 
<b>GDP</b> 4,454.7억 달러 (2019 <sup>e</sup> ) 	<b>1인당GDP</b> 9,887.8달러 (2019 <sup>e</sup> ) 	<b>통화단위</b> Peso(Ps) 	<b>환율(U\$기준)</b> 48.15 (2019 <sup>e</sup> ) 

□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 남부 및 남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278만 km<sup>2</sup>(한반도의 12.6배)로 세계 8위에 해당하며,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4,548만 명으로 추정됨.

□ 세계 2위의 셰일가스 보유국이자 세계 3위 리튬 보유국이며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을 갖추고 있고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나,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마크리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폐소화 가치 급락과 빈곤율 급증,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은 아르헨티나는 2019년 10월 대선에서 '모두의 전선'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당선되며 4년 만에 좌파 정부가 재집권하게 되었음.

□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1,000억 달러(약 119조 원)의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까지 4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 중인 IMF와 협상을 진행 중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2. 15. 수교 (북한과는 1973. 6월 수교, 1977. 6월 단교)

**주요협정**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보호협정('72),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교환('92), 투자증권·보호협정('96),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0), 과학·기술협력협정('03), 항공협정('04), 외교관·관용사증면제교환각서('04), 경제·무역협정('06), 문화·교육협정('07), 형사 사법공조조약('13),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9)

##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 품목
수 출	836,174	536,361	341,58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수 입	612,437	405,944	864,453	식물성물질, 금, 은 및 백금, 정밀화학원료, 어류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9.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7건, 601,080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제성장률	2.7	-2.1	2.7	-2.5	-3.1
소비자물가상승률	26.5	41.4	25.7	34.3	54.4
재정수지/GDP	-6.0	-6.7	-6.7	-5.2	-4.0

자료: IMF, EIU

### 2018년 이래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 가뭄으로 인해 주력 수출품인 대두와 옥수수 등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2.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19년에는 8월 대선 예비선거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어 당초 전망치보다 경기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지난해 4월 발표에서 아르헨티나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상하였으나, 10월 발표에서는 이를 -3.1%로 수정하였음.
- 한편,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63%였던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 인하하여 3월 5일자로 38%까지 낮추는 등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규제금융에 따른 IMF의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정책 추진의 폭이 좁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 위축 또한 지속되어 경제가 -1.3%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0%대 유지 전망

- 페소화 가치 폭락에 따라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의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에 따른 보조금 삭감 조치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면서 2019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4.4%에 이르며 1991년의 84%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추정됨.
- 마크리 전 행정부는 2019년 8월 대선 예비선거 이후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자, 외화를 매입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업이 단순 보유를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외환거래를 통제할 바 있으며, 페르난데스 행정부 하에서도 달러화로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자본에 대한 통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0년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180일 간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동결이 시행되고 추가적인 물가 안정화 정책의 시행이 예상되어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소폭 하락이 예상되나, 이는 하반기의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로 평가되어, 2020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0%로 여전히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물가상승률은 2.3%로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3.7%)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9년 7월 이후 6개월 만에 월간 최저 수치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 상 수 지	-17,622	-15,105	-31,163	-27,276	-5,284
경상수지/GDP	-2.8	-2.7	-4.9	-5.3	-1.2
상 품 수 지	-785	4,416	-5,447	-745	17,635
상 품 수 출	56,809	57,960	58,662	61,799	65,694
상 품 수 입	57,594	53,544	64,109	62,544	48,059
외 환 보 유 액	20,571	33,563	50,107	59,238	39,221
총 외 채	173,457	190,490	238,190	281,590	271,690
총외채잔액/GDP	27.0	34.2	37.1	54.2	61.0
D.S.R.	30.3	39.2	46.5	31.1	56.4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흑자 전환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 축소

- 아르헨티나의 상품수출은 농산물, 광물 등 1차산품에 의존적인 구조로, 기후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의 요인들에 의해 경상수지가 좌우됨.
- 2018년 가뭄 등으로 농산물 생산이 타격을 입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3%까지 확대 되었으나, 2019년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동 비중이 -1.2%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산 대두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르헨티나산 대두의 대 중국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이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2019년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38.7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증가액 기준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20년에는 상품수출이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상품수입은 감소하여 GDP 대비 0.36%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전망됨.
-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 재임 시절 수입제한 조치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시행했던 인물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2020년 아르헨티나의 상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미국에 우호적인 브라질과의 교역을 줄이고 대신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을 늘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상품수출은 기존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664억 달러까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2019년 대 이란 수출은 총 2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특히 브라질산 옥수수는 이란의 전체 옥수수 수입물량의 절반을 차지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 2019년 외환보유액은 페소화 가치 방어 과정에서 급감

- 일부 외채를 상환하고 페소화 가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약 200억 달러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19년 8월 대선 예비선거 이후 페소화 가치가 장중 22% 폭락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달러화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외환보유고가 8월 한 달 동안 약 134억 달러 감소하였음.
-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2016년 월평균수입액의 4.5개월분으로부터 2018년 6.4개월분까지 증가 하였으나, 2019년 외환보유고가 약 200.2억 달러 감소하면서 월평균수입액 대비 비율도 5.1개월분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지표 악화 속 잇따른 채권 만기 연장

- 2015년 27.0%였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국채 발행과 IMF 대기성차관 도입 등으로 인해 2019년 61.0%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이은 대외차입으로 D.S.R. 또한 56.4%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대선 승리 이후 여러 차례 부채 상환 의지를 밝혀왔으나, 외채지표가 악화되는 상황 하에서 지난해 12월 20일 90억 달러의 부채 상환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12일에도 2018년 7월 발행된 페소화 표시 채권 AF20의 원금 상환을 2월 14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힘.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2월 24일 아르헨티나의 현 상태를 1,00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던 2001년에 빚대며 국가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언급함.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1,00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3월 말을 자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주 단위의 타임라인을 공개하였음. 특히 2월 2주차부터 IMF를 시작으로 채무재조정 협상이 진행 중이며, IMF가 구제금융으로 440억 달러를 제공한 최대 채권자인 만큼 동 협상의 결과가 아르헨티나 채무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재정이 아닌 채무 탕감을 추진코자 하는 반면, IMF는 탕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양측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됨.

## 구조적취약성

### 농업 분야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남미 대륙 남단 팜파스 대평원의 넓은 곡창지대를 보유한 아르헨티나는 대두와 밀, 옥수수 등의 농산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1차산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함.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9년 기준 대두박(3,030만 톤) 부문 세계 1위 및 옥수수(3,350만 톤) 부문 세계 3위 수출국임.
- 가뭄 등 기후 요인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018년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타격을 입어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고, 2019년 1월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였음.

### 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기업경영여건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126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경영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음.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는 141개국 중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39위, 노동시장 분야에서 117위에 그쳤음.
- 세부 지표별로는 인플레이션 부문에서 138위,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에서 136위 등을 기록하였음.
- 동 보고서의 인프라 분야 순위는 68위였으나, 도로 상태 부문에서 92위, 철도 서비스 효율성 부문 79위 등 육상물류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여 세계 8위에 해당하는 국토 면적에 비해 취약한 육상 인프라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성장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개발 잠재력 보유

- 아르헨티나는 추정매장량 약 22조 m<sup>3</sup>의 셰일가스를 보유하여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셰일가스 보유국이며, 금과 은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 2015~18년 광물 채굴 지원 예산은 전 세계 평균 10%가 늘어난 반면, 아르헨티나는 동 예산을 90% 늘리며 광업 부문을 지원 중임.
- 특히 칠레, 볼리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 리튬의 75%가 매장되어 있어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등 자원부국으로서 향후 인프라 개발에 따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지질조사국의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9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는 세계 3위 및 점유율 14.3%에 해당하는 20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음.

### 역내 시장통합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 아르헨티나는 2019년 기준 GDP 규모가 4,454.7억 달러로 브라질에 이은 남미 2위의 경제대국이며, 메르코수르를 통한 시장통합으로 유망한 역내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경제공동체로, 남미 지역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2억 9,000만 명의 인구와 약 76%에 해당하는 2조 7,000억 달러의 GDP를 차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임.



## 정책성과

### 마크리 행정부 하에서 경제상황 악화

-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3.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54.4%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율이 40%를 넘어서고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
- 마크리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공공요금은 6~7배 상승하였고, 2015년 6.7%였던 실업률은 2019년 1분기(10.6%)와 2분기(10.1%)에 10%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 3분기 기준 9.7%를 기록하였음.
-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 실시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은 경제여건을 악화시켜 지난해 5월 전국 노동자총연맹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음.

###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비상 경제정책 발표

- 2019년 12월 17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새 행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생산 활성화법'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동 법안은 12월 21일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품인 농산물의 수출세 인상과 고가 자산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동법에 따라 밀과 옥수수의 수출세는 12%에서 15%, 대두의 수출세는 30%에서 33%로 인상됨. 또한, 고가 자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외환 매입 시 3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됨.
-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동 법안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정치동향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좌파 정권 수립

- 2019년 10월 대선에서 중도좌파연합 '모두의 전선'(FdT)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는 48%의 득표율로 40.47%의 득표율에 그친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에 승리를 거두고 12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4년 만의 좌파 정권이 수립되었음.
- 아르헨티나 대선은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이상 득표하면서 2위 후보에 10%p 이상 앞설 경우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실권 장악에는 불안 요소 존재

- 현재 '모두의 전선'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의 경우에는 마크리 전 대통령의 소속당인 중도우파연합 '변화를 위해 함께'(JC)가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일각에서는 법학 교수 출신으로 주요 공직 출마 경험이 적은 페르난데스 대통령보다는 전 영부인 및 대통령 출신인 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실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 또한 늘고 있음.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2003~07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07~15년에는 남편에 이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인물이며, 당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2003~08년 국무실장을 지냈었음. 당초 크리스티나는 지난해 대선에 직접 출마하려 했으나, 11건의 부정부패 소송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페르난데스를 대신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크리스티나는 12년 간 철도와 상·하수도, 항공사 등을 국영화하고 연금 지급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아르헨티나식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아르헨티나 언론은 크리스티나의 부통령 당선에 대해,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외국 자본을 배제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 뒤 매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25% 인상하여 '빈민의 성녀'라고 불렸던 에바 페론 전 영부인의 별명 에비타에 빗대어 '에비타의 귀환'이라고 부르며 조명하고 있음.

## 사회동향

### 경제상황 악화 속 시위 가능성 상존

- 아르헨티나에서는 열악한 치안과 경제상황 악화 및 마크리 전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등으로 촉발된 시위가 지속되었으며, 2019년 11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과 부패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시작된 '냄비 시위'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진행되었음.
-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12월 14일 대통령의 공표로 즉시 발효되는 '필요와 긴급성 법령'(DNU)을 통해 향후 18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기준금액의 2배로 증가시키며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고, 1월 20일에는 노동조합과 회담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단기적으로는 시위가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월 12일 채무재조정 협상을 위해 방문한 IMF 대표단에 대한 반대 시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하였으며,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시위의 재점화 가능성이 상존함.
- 또한 정부의 광업 부문 지원 확대에 따라 환경 관련 시위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국제관계

### 대선 이후 경색되었던 브라질과의 관계 개선 조짐

-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나, 2019년 10월 아르헨티나 대선을 전후하여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었음.
- 10월 말 대선을 앞두고 좌파 정권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거부하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탈퇴하거나 아르헨티나를 메르코수르에서 축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대선 이후에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브라질 좌파 진영의 상징인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난하며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대외관계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2월 펠리페 솔라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였고, 3월 초에는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또한 솔라 장관의 예방 이후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강한 아르헨티나를 기대한다"며 아르헨티나의 위기 극복을 도울 것이라는 뜻을 밝힘.

##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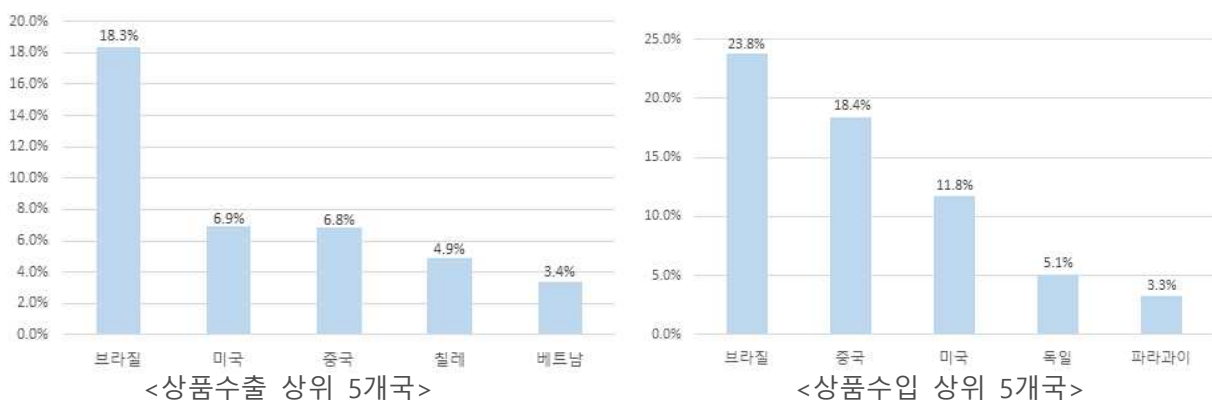
### 메르코수르를 통한 FTA 체결 추진

-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를 통해 2019년 6월 말 유럽연합(EU), 8월 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체결에 합의하였음.
- 그러나 지난해 8월 아마존 산불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EU와의 FTA가 아르헨티나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합의안 수정을 주장하여 FTA 추진이 불투명해졌음.
- 하지만 2월 브라질을 방문한 펠리페 솔라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메르코수르가 다른 블록이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메르코수르의 FTA 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메르코수르는 올해 내 타결을 목표로 2월 10~14일 한국과 5차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였고, 캐나다와 싱가포르와도 FTA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FTA도 추진 중임.

###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대 중국 대두 수출이 늘어나는 등 2018년 기준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총 상품수출액 중 3위에 해당하는 42.1억 달러 및 총 상품수입액 중 2위에 해당하는 120.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중국은 또한 57억 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댐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리튬 광산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며 중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2018년 주요 상품수출국 및 수입국



자료: 국제무역센터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개선 추세이나 대규모 연체액 존재

-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한 대규모 디폴트 선언을 비롯하여 독립 이후 총 8차례 국가부도를 선언하였고, IMF로부터 30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음.
- IMF는 2018년에도 마크리 행정부와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하였고, 그중 현재까지 440억 달러를 제공하였음.
- 2019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로부터 제공받은 중장기 여신잔액 38억 3,870만 달러 중 38.0%에 해당하는 14억 5,730만 달러가 연체 상태에 있음. 이는 6월 말의 37.2%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이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55.5% 및 2019년 3월 말 기준 50.5%에 비해 개선된 수치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등급 (2019.10)	6등급 (2018.10)
Moody's	Caa2 (2019.08)	B2u (2019.07)
Fitch	CC (2019.12)	RD (2019.12)

### OECD 7등급으로 하향 조정, 신용평가사의 등급은 채무 만기 연장에 따라 하향 조정 추세

- OECD는 2019년 10월 정권 교체 예상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국제신용평가사는 2019년 8월 정권 교체기의 채무재조정 협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Moody's는 Caa2, Fitch는 제한적 디폴트(RD)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음.
- 만기 연장된 단기채무 중 일부가 신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정상 상환되자 9월 3일자로 Fitch 등급은 CC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12월 20일 90억 달러 규모의 단기부채 상환을 2020년 9월까지 미루겠다는 발표에 다시 RD로 강등되었음.
- 이후 정부가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고 성공적으로 폐소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12월 23일 Fitch는 CC 등급을 부여하였음.

- 아르헨티나 경제는 IMF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 이행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폐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폭등과 기준금리 대폭 인상에 따른 투자 냉각 등으로 -3.1%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0월 대선에서 중도좌파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당선되어 4년 만에 좌파 정권이 부활하였음. 대선을 전후하여 최대 교역상대국인 브라질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2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메르코수르를 통한 FTA 추진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고, 3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총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의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IMF와의 협상을 진행 중임. 1,000억 달러의 채무 중 44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와의 채무재조정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전체 채무의 상환스케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채무재조정 협상의 결과 및 부채 상환 경과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